

사회

금감원 간부 보해저축銀서 그랜저 받아

광주지검, 3급 검사역 체포... 부인 보험사 가입 실적 올려주기도

사채업자 모집 수수료 48억 받은 브로커 구속

보해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뇌물을 받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눈감아 준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다. 보해 저축은행과 금감원 간의 유착관계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1일 은행측으로부터 송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3급 검사역 김모(43)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은행 법인차량으로 쓰던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그

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김씨는 또 보험 모집을 하는 아내를 위해 보해저축은행 7대 등의 차량 보험과 보해저축은행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009년 3월 보해저축은행 감사팀원으로 활동했으며 실제 감사에서의 불법행위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이 보해저축은행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씨는 지난해 부터 올해 2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1300억원을 보해저축은행에 예금하게 하고 법정 이자 외에 수수료로 4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구속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과 짜고 2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하는데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모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해 13일에는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특검법상 배임 등)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

이사가 구속됐다.

현재 주요 수사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 금감원 전·현직 간부 4명, 금융 브로커 3명 등 모두 8명이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잠적한 삼해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의 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보해 저축은행에서 20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잠적했다.

한편, 보해 저축은행은 1971년 목포에서 설립됐으며, 최근 불법·부실대출 등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인해 영업을 정지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고보조금 줄줄 샌다

광주지검, 수경재배 허위 서류 12억 수령 6명 기소 여수해경, 영터리 유류절감기 3억 쟁건 6명 적발

국민의 혈세를 쌔짓돈처럼 사용한 시설물 설치업체와 농·어민 등이 검·경에 잇따라 적발되는 등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11일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입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와 짜고 보조금을 타낸 농민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경 재배시설 설치업자인 김씨는 2008년 12월께 농민 박모씨가 자부담금 32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허위 금융거래서를 첨부해 화순군에 보조금을 청구, 3000만원을 지원받게 하는 등 모두 12억여원을 받게 한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이 부당수령한 보조금은 담양군 6억7000만원, 화순군 4억9000만원, 나주시 2500만원, 영광군 1900만원 가량이므로 과약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도 이날 영터리 디젤

기관용 유류절감 장비를 어선에 설치해 주고 국고보조금을 타낸 조선기재 제 제조업체 대표 손모(60)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이들과 짝 이모(55)씨 등 선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손씨는 2009년 7월 초에 자신이 개발한 영터리 유류절감 장비를 수협중앙회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여수·부산·제주 등 어선 35척에 90대를 설치해주고 국고보조금 3억7000만원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 선주들은 1대당 500만원 선인 어업인 부담금 전액을 제조업체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손씨 등의 말을 어민들에게 전파하는 등 이들의 국고보조금 편취를 도운 혐의다.

손씨 등은 자신이 개발한 유류절감 장비를 모 국가시험연구기관에 성능 평가를 의뢰,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뒤 특허를 받아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양식장 작업 60대 익사

11일 오전 11시49분께 신안군 지도읍의 한 우럭 양식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배를 타고 양식장에서 작업하다 물에 빠졌으며,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구조했으나 결국 숨졌다. 목포해양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5·18 회원, 보훈청 직원 폭행

5월 관련단체 일부 회원들이 광주 지방보훈청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광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회 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이하 5·18 공추위) 소속 회원 4~5명이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께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보훈청 사무실에서 직원 A씨 등 3명을 주먹 등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A씨는 골절상을 당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5·18 공추위 회원들은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과 5월 관련단체 대표들과

함께 분향에 나섰다. 분향순서에서 5·18 공추위 대표가 배제된 것에 격분, 찾아가 항의하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광주지방보훈청은 피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피의자에 대한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5·18 공추위 관계자는 "광주지방보훈청이 행사 의전에서 우리 대표를 제외한 것은 5·18 공추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 회원들도 똑같은 과정에서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가 조작 前 여수상의회장 등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9명을 적발, 이중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대표 김모(42·불구속기소)씨 등 일원진은 지난 2008년 A사를 인수하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 2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허수·고가매수하거나 가장·통정매매에 주가를 조작,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시세를 조종한 C코스닥 상장사 대표 박모(63)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등 6명도 기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으로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박씨는 2008년 3월 비상장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 보유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 2개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허수·고가매수하거나 가장·통정매매에 주가를 조작,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통행료 요구 대리기사 폭행 못된 손님

○통행료 1200원을 달라는 대리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못된 손님이 경찰서행.

○1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정모(53)씨는 지난 10일 밤 10시2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아파트 앞에서 대리기사 송모(48)씨의 배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대리기사 송씨는 북구 문흥동에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해 학동까지 정씨의 차량을 대신 운전한 뒤 정씨에게 대리비 1만원과 순환도로 요금 1200원을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정씨는 "대리비 1만원에 모두 포함돼 있는 거 아니냐"며 황설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쏟아지는 비... 물꼬 트는 농부

11일 오후 5시까지 광주 117.5mm 등 전남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도내 9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담양군 용면의 한 목초재배지에서 농부가 삼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

/담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보해양조가 책임 다하라”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시가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예금자 피해가 없도록 대주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고 “보해 저축은행의 모기업인 보해양조는 대주주로 부실 경영을 방치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영업정지 이후 보해양조가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어 “보해 저축은행이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 금융당국은 재

무구조가 건설한 금융그룹이 인수하도록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서민의 예금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또 “금융 당국도 부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만큼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민단체 등과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금액은 235억원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미확인 폐렴 유행성으로 보기 어려워”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정체불명의 폐질환 환자 6명(광주일보 5월 11일 6면)의 검체에 대한 원인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병이 지역 사회에서 급속하게 유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검사 결과 1명의 환자에게서 ‘아테노바이러스 53’이 분리됐지만, 나머지 5명에게는 병원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또 분리된 아테노바이러스는 폐렴을 일으키기

는 하지만 이번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양병국 감염병관리센터장은 “환자에게서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의 거주지가 모두 다르고 환자 주변에서 추가 발병이 없었으며 산모 이외의 면역저하자에게서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등 특정한 병원체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폐’ 가방 훔친 10대 잇단 입건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노스페이스 열풍에 찻없는 10대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11일 독서실에서 중학생들의 가방을 훔친 이모(17)군 등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독서

실에서 각각 20만원 상당인 중학생 운동모(16)군 등 2명의 노스페이스 가방 2개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이들은 윤군 등의 가방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스페이스 제품이라는 점을 노려 훔친 뒤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광주남부경찰도 지난 3일 각각 놀이터와 독서실에서 노스페이스 가방을 훔친 고등학교생 3명을 특수절도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호지기자 kimho@kwangju.co.kr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
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